

# 슈퍼예산 중 농업은 겨우 3.1% 편성

### 박주현, 농식품부 쓴소리 매년 1000억원 삭감 계획 “文, 농업홀대 도 지나쳐”



씩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삭감한다는 계획입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예산은 ▲2015년 375조 4000억 원 ▲2016년 386조 4000억 원 ▲2017년 400조 5000억 원에서 점차 늘어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428조 8000억 원 ▲2019년 안 470조 5000억 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2016년 2.9% ↑ → 2017년 3.7% ↑ → 2018년 7.1% ↑ → 2019년 9.7% ↑로 증가하여 재정확장 기조가 뚜렷이 나타났다. 이에 반해, 농식품부 예산은 ▲2015

년 14조 431억 원 ▲2016년 14조 3681억 원 ▲2017년 14조 4887억 원 ▲2018년 14조 4996억 원 ▲2019년 안 14조 6480억 원으로, 2016년 2.3% ↑ → 2017년 0.8% ↑ → 2018년 0.1% ↑ → 2019년 1% ↑로 농식품부 예산의 증가율은 정체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3.7% ▲2016년 3.7% ▲2017년 3.6% ▲2018년 3.4% ▲2019년 3.1%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 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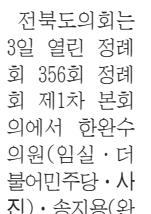
박주현 의원은 “우리의 근본은 농업에 있고, 농업은 산업의 근간이다. 농업은 식량안보를 위해서 중요하고 생태적 가치도 매우 크다. 전 세계적

으로 특히 선진국에서 농업은 식품산업, 관광산업, 4차산업 등과 연관된 6차산업, 10차산업으로 중요시되고 있으며, 5천만 명 정도의 인구 대국이 농업을 중시하지 않고 선진국으로 발전한 사례는 없다”며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농업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경제 약자인 농민을 무시한 문재인 정부의 농업홀대가 도를 지나쳤다”라며, “내년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농식품부장관 6개월,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4개월의 공백이 초래한 농업 참사. 농식품부 차관 이하 직원들 역시 수장 공백 상황에서 농업·농촌을 제대로 대변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성 기자

2019년 국가예산안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3.1%로 발표돼, 문재인 정부의 농업·농촌 무시가 현실로 드러났다. 농정을 책임지는 농식품부 역시, 무엇을 했는지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사진)이 지난 8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9년 국가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0년~2022년까지 매년 1000억 원

### 한완수, 토양정화법 반영한 등록·관리처리 건의안 발의



전북도의회는 3일 열린 정례회 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완수 의원(임실·더불어민주당·사진)·송지용(완주1·더불어민주당)이 공동대표 발의한 ‘토양정화법 등록·관리처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기국회 개회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4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시설에 대한 인허가권이 해당 자치단체가 아닌 타 자치단체에 있는 현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토양정화법 등록·관리처리 지침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의 발단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한 업체가 임실군 신덕면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시설을 만들고 자 부지를 매입한 후 광주광역시에 변경신고를 하면서부터이다.

현재의 지침에 따르면 토양정화법 반입정화시설 소재지인 임실군은 허가 권한이 없고 타법 저촉여부 등 협의 기관일 뿐이며, 상급기관인 전북도청은 협의가능 및 어떠한 권한과 책임이 없어 이모든 행정 절차에서 완벽히 배제된 상황이다.

한완수 의원은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토양정화법 등록·관리처리지침으로 인해 더 이상 지역간·주민간의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환경부의 빠른 대책 마련과 실행을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 “삼성투자 전북 유치, 도 적극 나서야”

### 전북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문승우 의원 5분 자유발언



고 고통과 아픔은 군산시민과 도민의 몫으로 남았다”며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을 기다리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스스로 자 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삼성에게 사회적 책임, 과거의 인연을 운운하는 것은 어떠한 효과도 없으며 그들의 투자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분야별 맞춤형 전략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파격적인 제안과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군산과 전라북도가 타 지역과 비교해 절대 뒤지지 않는 국내 최고의 전자산업 투자기반을 갖추고 있어 경쟁력이 충분한데도 도가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라북도 기업유치를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도민에게 결과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의회 문승우(행정자치위원회, 군산1·사진) 의원이 3일 제356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삼성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우 의원은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이어 GM공장까지 폐쇄되면서 군산과 전북경제가 패닉에 빠진 채 신음하고 있으나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

## 文 2기 개각, 국민 절반 ‘긍정적’

### 유권자 500명 중 50.8% ‘잘했다’ 평가... 부정 28%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2기 개각 발표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50.8%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31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95% 신뢰수준·표본오차 ±4.4%p·응답률 6.5%) 2기 개각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평가는 50.8%(매우 잘함 16.4%·잘함 34.4%)로 조사됐다. 개각이 ‘잘못됐다’는 부정평가는 28%(매우 잘못 10.6%·잘못하는 편 17.4%)로 나타났다. 모름은 21.2%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40대(잘했다 59.2% vs 잘못했다 25.6%), 30대(50.8% vs 28.0%), 50대(49.0% vs 27.9%), 60대 이상(48.6% vs 30.0%), 20대(46.1% vs 28.3%) 순으로 긍정 평가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잘했다 67.5% vs 잘못했다 13.5%), 서울

(56.8% vs 21.9%), 대전·충청·세종(52.0% vs 29.9%), 경기·인천(49.3% vs 27.9%)에서는 긍정 평가가 다수였다. 부산·울산·경남(잘했다 40.3% vs 잘못했다 38.3%)과 대구·경북(38.0% vs 37.7%)에서는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지지당당별로는 민주당(잘했다 71.1% vs 잘못했다 11.1%)과 정의당(71.0% vs 13.1%)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70% 이상 높았다. 한국당(16.0% vs 67.7%)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잘했다 32.0% vs 잘못했다 35.2%)에서는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념성향별로는 긍정 평가가 진보층(잘했다 67.8% vs 잘못했다 12.8%)에서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도층(47.4% vs 31.2%)에서도 우세했다. 보수층(잘했다 25.8% vs 잘못했다 52.1%)에서는 부정 평가가 절반 이상으로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

## “국회 특활비 폐지는 혁신적 결정”

### 문 의장, 방만운영 철거 검증 새로운 국회상 정립 등 약속



다. 그러면서 “(국회) 즉각적으로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구조조정에 버거가는 예산, 인사, 조직

문희상(사진) 국회의장은 2018년 정기국회 시작일인 3일 “국회 특활비(특활비) 폐지를 계기로 국회 전반에 대해 방만한 운영, 낭비성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고 절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특활비 폐지는) 70년 국회 역사 속에 기록될 만한 혁신적인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국회는 특활비의 ‘소용돌이’에 빠져있었다”며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 따르는 것이 순리였고, 결론적으로 특활비 본연의 목적 외에 전액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개혁과 혁신에 당장은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도 해야만 하는 일이고,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특활비 폐지 결정에 동참한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단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뉴스

운영의 혁신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국회의상을 정립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의장은 또 국회가 ‘민주주의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임을 강조했다. 그는 “역설적이게도 국회는 늘 비판의 대상이지만, 가장 강력한 개혁의 주체이기도 하다”며 “국회가 필요할 때 민주주의도 살고 정치도 살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은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다”면서도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라며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 것을 호소했다. /뉴스

# 眞

명품특선 '진'

소중한 고객을 위한 진안의 선택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진안고원에서 정성어린 손길로 마이산의 정기를 흠뻑 받아 만든 건강한 진안의 농·특산물을 선물하세요.

NAVER 무료배송 50,000원 이상

www.jinanshop.com

## 모두 함께 즐기는 추석 선물대장간

진안인삼 선물세트

바람겨거리 표고버섯

맛이달콤 진안사과

군수품질인증 진안홍삼

진실홍삼주

자연에서 새싹담은 꿀

구입문의: 진안군전자상거래유통사업단 063-433-7247 진북진안군 진안읍 진우로 1156 한방약초센터

보다 자세한 제품은 진안군 전자상거래 '마이산 정기담은 소희들(www.jinanshop.com)'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